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의 차이 분석

Differences in Depressive and Somatization Tendencies in Children by Type of Maternal Parenting Attitude

1차원고접수: 2024.07.12. 수정원고접수: 2024.11.27. 최종 게재결정: 2024.12.20.

남재영¹ · 백용매² · 박은영³

¹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 수료

²라온혜움힐링센터, 센터장

³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Nam, Jaeyoung¹

Baek, Yongmae²

Park, Eunyoung³

^{1,3}Dep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²Raonhyeyum Healing Cente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머니 양육태도의 최신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D지역에 소재한 심리상담센터에 내방한 만 7세 ~ 11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221명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검사와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 2단계 군집분석,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 양육태도 특성에 따라 3개의 군집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각 군집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 1은 애정결여-무관심 집단(24%) 군집 2는 처벌적-통제 집단(33%), 군집 3은 온정적-친밀 집단(4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아동의 우울감에 있어서 군집 1과 군집 2는 군집 3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신체화 경향에 있어 군집 1과 군집 2는 군집 3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나라의 최신 어머니 양육태도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어머니 양육태도, 양육태도 군집유형, 아동기 우울, 아동기 신체화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latest types of maternal parenting attitudes that have recently emerged in modern society and examines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depressive and somatization tendencies depending on the type of parenting attitude. The Parenting Attitude Test and the 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were administered to 221 children aged 7-11 years and their mothers who visited a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City 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for correlation, two-level cluster analysis, and multivariate analysis. First, the study identified three clusters based on maternal parenting attitude characteristics. To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luster, cluster 1 was named Unaffectionate - Uninterested (24%), cluster 2 was named Punitive -Controlling (33%), and cluster 3 was named Warm - Intimate (43%). Second, clusters 1 and 2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luster 3 for children's depression. Third, clusters 1 and 2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cluster 3 in children's somatization tendenci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information is expected to be used as a resource for parent education and parent counseling, an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amines the latest types of mother parenting attitudes in South Korea.

Keywords maternal parenting attitude, parenting attitude cluster type, childhood depression, childhood somatiz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

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만 6세 ~ 17세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이 5년간 60% 폭증하였다. 즉, 우울감을 경험하고 이를 진료받기 위해 병·의원에 내원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만 6세에서 11세에 해당하는 아동의 우울증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슬비, 2023). 아울러, 통계청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Corresponding to 박은영 (Park, Eunyoung)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Dep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E-mail. eyp0202@cu.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심수진, 김은아, 2022)에서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2015년도 이후부터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면 아동의 심리발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남은영, 2009). 아울러, 아동기에 우울을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들어서도 정서 및 행동장애를 겪을 수 있기에 아동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배주미, 2000).

수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의 우울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문제의 일차적 원인으로 부모 변인이 보고된 바 있다(Kagan, 2003). 부모라는 존재는 시대나 문화를 막론하고 자녀의 생애 발달 초기부터 전 생애에 걸쳐서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인 결속 및 유대감을 형성하며, 양육 행동을 통해 자녀의 심리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이경숙, 박진아, 이미리, 신유림, 2013).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졌다(길혜지, 황정원, 2017). 이에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이어졌으며,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양육태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연구해왔다.

부모양육태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Becker(1964)는 양육태도를 주 양육자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취하는 태도라고 하였으며, 남상인(1983)과 한종혜(1980)도 양육태도에 대해 부모 혹은 그 대행자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라 정의 내리며,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발달 과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경선(2006)은 양육태도를 유아에 대한 부모의 반응방식이자 유아에 대한 부모의 요구라고 정의 내렸으며, 이러한 양육태도는 양육행동 또는 양육스타일, 양육방식으로 불리는 경우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위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일관된 행동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육태도라는 속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구조와 현재 처한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김누리, 이정윤, 2020). 다시 말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요구되는 이상적인 부모의 역할과 행동규범은 그 사람이 속해있는 시대나 문화, 사회적 가치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환, 김정희, 차평, 한지현, 2016). 따라서 기존의 부모양육태도 이론과 관련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더라도 시대적·문화적 흐름에 따라 최신 양육태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부모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된 바 있다(남은영, 2009). 국내의 부모양육태도와 유아 정서 및 문제행동에 대한 최신 메타분석 자료(유민경, 2024)에서도 우울에 대한 연구는 115개 중 4개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기 우울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모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승아와 김라진의 연구(2023)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의 하위척도인 아기 취급 양육행동과 보호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민정임과 한세영의 연구(2012)에서는 어머니의 심리통제 양육행동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명재와 방희정(2014)은 어머니의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이 낮을 경우, 자녀의 우울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손소영의 연구(2004)에서는 우울을 비롯한 내면화 문제를 지니고 있는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부모의 방임적 태도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Nadeau, Nolin, & Chartrandet, 2013)와 부모의 돌봄 부족 혹은 과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과 위축, 불안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Rey & Plapp, 1990).

다만, 위의 선행연구들을 비롯하여 국내의 부모양육

태도 관련 다수의 연구들(김미진, 2016; 김원, 박은아, 천성문, 2016; 김종희, 박성희, 2018; 김지윤, 진미경, 2019; 문대근, 문수백, 2011;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에서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서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거나 변안된 검사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누리, 이정윤, 2020). 부모양육태도는 당시의 사회구조와 문화권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임정하, 정옥분, 2004; 최상진, 2000) 그 사람이 속해있는 문화권의 특성을 반영한 검사도구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춰 개발된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사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머니 양육태도의 다양한 최신 유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동기 우울의 경우, DSM-III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최윤경, 이지연, 2011), 성인기 우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오경자, 김은정, 1992). 우울을 경험하는 아동은 우울하고 슬픈 기분보다는 짜증 및 예민한 기분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와 함께 신체증상, 학습부진, 공격성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lmquist, 1977). 또한, 아동의 경우 우울 증상과 신체화 증상 간의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는데(윤기봉, 이사라, 2017),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내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높아 자신의 신체감각을 더욱 증폭시켜 이를 병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신체화 증상 또한 높아지게 된다(Vaccarino, Sills, Evans, & Kalali, 2008).

신체화(somatization)란 병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들을 경험하고 이를 호소하며, 그것을 신체 질병으로 판단하고 의학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ipowski, 1988). 아동의 경우, 청소년이나 성인보다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서적 문제를 신체적 증상으로 표출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이한주, 서미아, 2010; Fritz, Fritsch, & Hagino, 1997). 아동의 신체화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보건복지부(2006)의 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화를 방치

할 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체화 증상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정계숙, 2009).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신체화를 일으키는 한 변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해경(2005)은 부모의 과잉보호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신체화 증상을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신현균의 연구(2002)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학대 및 방치할 시, 자녀는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그에 따른 신체화 증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지닌 사람일수록 신체화 호소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Waller, Scheidt, & Hartmann, 2004)가 있다.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어머니는 주 양육자로서 아버지보다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tevenson et al., 2014). 보건복지부(2024)의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주 양육자의 비율 중 90.4%가 어머니이고, 6.0%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나 현재도 여전히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역할과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해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양육태도 측정을 위하여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사용해왔다. 부모양육태도검사 특성 상 양육태도의 각 차원에 대해 독립적인 해석이 이루어 졌는데 예를 들면, ‘어머니의 애정표현은 높다 혹은 낮다’, ‘어머니의 처벌수준은 높다 혹은 낮다’와 같이 양육자의 양육특성을 단편적이고 일차원적으로 해석하였다(유지연, 황혜정, 2022). 이에 ‘어머니의 성취압력과 처벌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애정표현과 합리적 설명도 높은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와 같이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해석이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근래에는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사용한 연구에서 군집분석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조유진, 2012).

부모양육태도를 군집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경희와 정재은(2024)은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용적 양

육태도 집단과 과보호적 양육태도 집단으로 유형화하였으며, 수용적 양육태도 집단은 과호보적 양육태도 집단보다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정서적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몇몇의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거나 자녀와 소통을 더욱 많이 하는 군집유형일수록 자녀의 사회적 유능감이 높고, 문제행동 발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길해지, 황정원, 2017; 한혜림, 2021).

이처럼 군집분석이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연구대상들을 자연발생적으로 조합 및 유형화하여 여러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형화된 각 집단들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유지연, 황혜정, 2022; 이학식, 임지훈, 2015). 특히, 군집분석 시 양육태도 각 하위요인과 같은 단일변인 중심으로 양육태도라는 종합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단일변인들 간의 조합이나 상호작용으로 생겨날 수 있는 고유한 영향력이 가려질 수 있다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조유진,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양육태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바탕으로 어머니 양육태도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하며, 나아가 양육태도 유형별 집단에 따라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양육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어머니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분류된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유형에 따라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에는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지역에 소재한 심리상담센터에 자녀의 심리평가를 받기 위해 내방한 만 7 ~ 11세 아동 221명과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 표집에 있어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아동들의 성비는 남아 118명(53.4%), 여아 103명(46.6%)이었고, 전체 아동의 평균 연령은 9.31세($SD = 1.33$)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평균 연령은 남아 9.31세($SD = 1.41$), 여아 9.31세($SD = 1.25$)이었으며($t = .016, p = .987$),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0.08세($SD = 4.52$)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무응답 32명(14.5%), 중학교 졸업 2명(0.9%), 고등학교 졸업 22명(10.0%), 대학교 졸업 140명(63.3%), 전문대 졸업 17명(7.7%), 대학원 졸업 8명(3.7%)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부모양육태도 검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임호찬(2008)이 구성한 부모양육태도 검사(Parenting Attitude Test; PAT)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어머니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중간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와 같이 1 ~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는 방식이다. 총 43문항으로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일관성의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양육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호찬(2008)의 표준화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지지표현 .82, 합리적 설명 .85, 성취압력 .81, 간섭 .70, 처벌 .72, 감독 .65, 과잉기대 .56, 비일관성 .7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지지표현 .84, 합리적 설명 .80, 성취압력 .80, 간섭 .72, 처벌 .75, 감독 .72, 과잉기대 .63,

비밀관성 .71로 나타났으며, 각 척도의 원점수를 Z점수로 하여 군집분석에 사용하였다.

2)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아동인성평정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를 사용하였다(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 2017). 이 검사의 경우, 만 3 ~ 17세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행동문제에 대해 부모 혹은 보호자가 직접 응답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와 같이 0 ~ 3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의 하위척도는 4개의 타당도 척도(무응답척도, 검사-재검사척도, 거짓말척도, 빈도척도)와 11개의 임상척도(자아탄력성, 언어발달척도, 운동발달척도, 불안척도, 우울척도, 신체화척도, 비행척도, 과잉행동척도, 정신병척도, 가족관계척도, 사회관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울척도와 신체화척도만 사용하였다. KPRC 표준화 연구(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2006)에서 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 신체화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수기채점이 불가능한 척도로 온라인으로 전산채점되며 각 척도의 표준점수(T점수)가 제공된다. T점수는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는 값으로 본 연구에서는 T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심리상담센터에 비용을 지불하여 심리평가를 받기 위해 내방한 만 7 ~ 11세 아동 221명과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과정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및 한국심리학회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이에 응한 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 중 문항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는 제외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22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2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의 양육태도 8개의 요인들 및 자녀의 우울, 신체화 경향에 대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고,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았다.

둘째, 모의 양육태도 8개의 요인들에 따라 몇 개의 군집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Ward의 방법을 사용해 표준화된 변인을 토대로 대략적인 군집의 수를 정하고,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을 통해 최종군집을 확정하였다. 이후 최종 확정된 군집 간, 모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MANOVA)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군집 간 자녀의 우울, 신체화 경향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 및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군집분석은 변수 간 상관성이 아닌 개체 간 거리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분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김호정, 2016; 이학식, 임지훈, 2015), 본 연구에서는 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

표 1. 변인 간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결과

(N = 221)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1									
2	.72***	1								
3	-.05	-.04	1							
4	-.12	-.28***	.32***	1						
5	-.26***	-.39***	.25***	.50***	1					
6	.40***	.32***	.25***	.30***	.12	1				
7	-.15*	-.15*	.27***	.31***	.18**	.04	1			
8	-.21**	-.34***	.24***	.37***	.49***	.00	.19**	1		
9	-.32***	-.25***	.02	.19**	.15*	-.14*	.46***	.12	1	
10	-.12	-.10	.03	.15*	.06	-.03	.32***	.10	.53***	1
M	38.99	23.97	10.52	20.60	12.06	28.06	7.57	9.28	53.31	47.51
SD	4.61	3.76	3.74	3.87	2.99	3.73	2.82	2.46	12.84	10.53
왜도	-.97	-.67	.79	-.18	.08	-.67	.29	-.14	.18	.65
첨도	.94	1.13	.28	-.44	-.26	.88	-.61	-.23	.22	.09

주. 1 = 지지표현, 2 = 합리적 설명, 3 = 성취압력, 4 = 간섭, 5 = 처벌, 6 = 감독, 7 = 과잉기대, 8 = 비밀관성, 9 = 우울, 10 = 신체화 경향.
* $p < .05$, ** $p < .01$, *** $p < .001$.

다. 먼저, 모의 지지표현은 자녀의 우울($r = -.32,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화 경향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의 합리적 설명의 경우 자녀의 우울($r = -.25, p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신체화 경향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모의 간섭의 경우 자녀의 우울($r = .19, p < .01$) 및 신체화 경향($r = .15,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모의 처벌의 경우 자녀의 우울($r = .15, p < .05$)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신체화 경향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의 감독의 경우 우울($r = -.14, p < .05$)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신체화 경향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의 과잉기대는 자녀의 우울($r = .46, p < .001$) 및 신체화 경향($r = .32, p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의 비밀관성은 우울 및 신체화 경향 모두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2. 어머니 양육태도 특성에 따른 군집유형 분류

모의 양육태도의 하위요인인 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밀관성에 따라 형성되는 군집을 파악하기 위해 각 척도의 점수를 표준화한 후 Hair와 Black(2000)이 제안한 2단계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Ward의 방법으로 위계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고, 군집화 일정표의 계수 변화 및 덴드로그램을 검토하였을 때 3개, 6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2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군집의 수를 직접 지정하는 비계층적 군집분석 방법인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K가 3일 때 중심과의 거리가 6.93, K가 6일 때 4.89으로 나타나 군집이 6개일 때 개체와 중심과의 거리 차이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집이 6개일 때 군집별 사례 수가 한 군집에 1개의 개체만 분류되는 경우가 있었고, 군집이 3개일 때 군집 별 사례수가 53, 72, 96으로 나타났다. Hair와 Black(2000)에 의하면, 각 군집에 해당하는 개체 수가 비슷하고 지나치게 적은 사례 수가 나타나지 않는 군집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3개의 군집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군집 1은 53명(24%), 군집 2는 72명(33%), 군집 3은 96명(43%)로 결정했다.

분류된 군집 간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8개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illai's trace = 1.23, $F(16, 424) = 42.16, p < .001$, $\eta^2 = .61$].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지지표현 $[F(2, 218) = 87.74, p < .001, \eta^2 = .45]$ 은 군집 3($M = 41.27, SD = 2.59$)이 가장 높고, 군집 2($M = 39.90, SD = 3.83$), 군집 1($M = 33.62, SD = 4.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합리적 설명 $[F(2, 218) = 90.97, p < .001, \eta^2 = .46]$ 은 군집 3($M = 26.27, SD = 2.20$)이 가장 높고 군집 2($M = 23.96, SD = 3.22$), 군집 1($M = 19.83, SD = 3.1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취압력 $[F(2, 218) = 63.50, p < .001, \eta^2 = .37]$ 은 군집 2($M = 13.76, SD = 3.69$)가 군집 1($M = 9.36, SD =$

2.71), 군집 3($M = 8.74, SD = 2.51$)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섭 $[F(2, 218) = 66.31, p < .001, \eta^2 = .38]$ 은 군집 2($M = 23.72, SD = 2.59$)가 가장 높고, 군집 1($M = 20.66, SD = 2.97$), 군집 3($M = 18.22, SD = 3.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처벌 $[F(2, 218) = 61.52, p < .001, \eta^2 = .36]$ 은 군집 1($M = 13.47, SD = 2.45$)과 군집 2($M = 13.75, SD = 2.43$)가 군집 3($M = 10.02, SD = 2.36$)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 $[F(2, 218) = 61.23, p < .001, \eta^2 = .36]$ 은 군집 2($M = 30.58, SD = 2.54$)가 가장 높고, 군집 3($M = 28.08, SD = 2.86$), 군집 1($M = 24.58, S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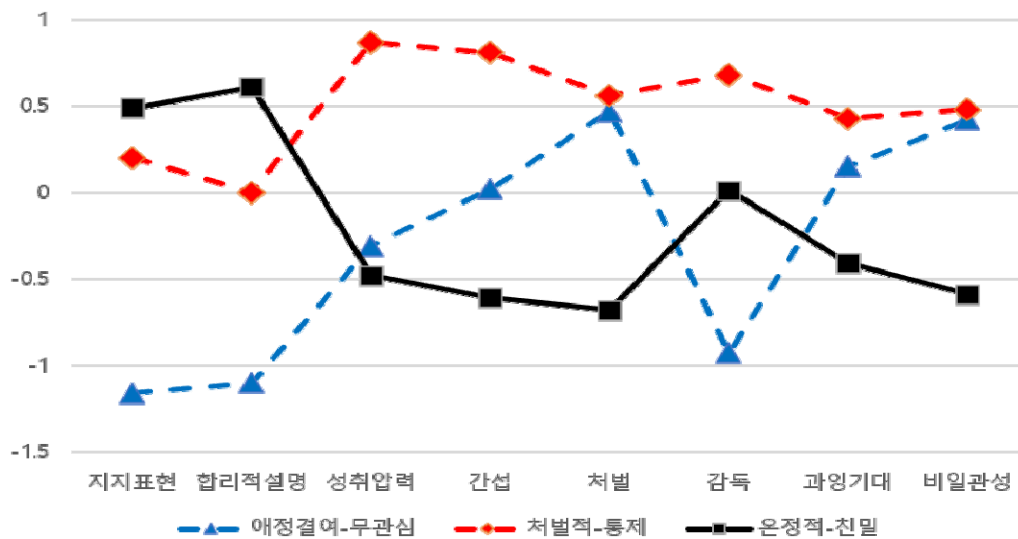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유형(Z점수)

표 2. 군집별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 통계량 및 다변량분석 결과

($N = 221$)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Partial η^2	<i>post hoc</i>
	애정결여-무관심	처벌적-통제	온정적-친밀			
	$M(SD)$	$M(SD)$	$M(SD)$			
지지표현	33.62(4.19)	39.90(3.83)	41.27(2.59)	87.74***	.45	3 > 2 > 1
합리적 설명	19.83(3.11)	23.96(3.22)	26.27(2.20)	90.97***	.46	3 > 2 > 1
성취압력	9.36(2.71)	13.76(3.69)	8.74(2.51)	63.50***	.37	2 > 1, 3
간섭	20.66(2.97)	23.72(2.59)	18.22(3.42)	66.31***	.38	2 > 1 > 3
처벌	13.47(2.45)	13.75(2.43)	10.02(2.36)	61.52***	.36	1, 2 > 3
감독	24.58(3.73)	30.58(2.54)	28.08(2.86)	61.23***	.36	2 > 3 > 1
과잉기대	7.98(2.75)	8.79(2.56)	6.43(2.61)	17.52***	.14	1, 2 > 3
비밀관성	10.30(2.07)	10.46(2.04)	7.83(2.18)	39.93***	.27	1, 2 > 3
표본 수 (비율)	53명(24%)	72명(33%)	96명(43%)			

*** $p < .001$.

3.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과잉기대[$F(2, 218) = 17.52, p < .001, \eta^2 = .14$]은 군집 1($M = 7.98, SD = 2.75$)과 군집 2($M = 8.79, SD = 2.56$)가 군집 3($M = 6.43, SD = 2.6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일관성[$F(2, 218) = 39.93, p < .001, \eta^2 = .27$]은 군집 1($M = 10.30, SD = 2.07$)과 군집 2($M = 10.46, SD = 2.04$)가 군집 3($M = 7.83, SD = 2.1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군집 별 하위요인의 조합된 형태를 검토한 결과, 군집 1은 양육태도의 긍정적 측면인 지지 표현과 합리적 설명, 감독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육태도의 부정적 측면인 처벌과 과잉기대, 비일관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평소 어머니가 자녀에게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부모-자녀 간의 따뜻한 상호작용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군집 1은 애정결여-무관심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취압력과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평소 어머니가 자녀의 일상에 과도하게 관여 및 감시하며 강압적이고 처벌 위주의 양육태도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군집 2는 처벌적-통제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은 긍정적 양육태도인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은 높은 반면, 부정적 양육태도인 성취압력, 간섭, 처벌, 과잉기대, 비일관성은 낮고 감독은 적정 수준으로 나타나 세 집단 중 가장 이상적인 부모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간의 정서적 친밀감을 높이고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

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군집 3은 온정적-친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 하위척도 값과 세 군집의 하위척도에 대한 다변량분석 결과는 그림 1과 표 2에 제시하였다.

3. 어머니 군집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의 차이 분석

모의 양육태도 하위요인들의 조합으로 분류한 세 개 군집에 따라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의 차이를 보이기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을 독립변인으로,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M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군집 간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에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illai's trace = .12, $F(4, 436) = 7.11, p < .001, \eta^2 = .06$]. 구체적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의 우울[$F(2, 218) = 13.05, p < .001, \eta^2 = .11$]은 ‘애정결여-무관심’ 집단($M = 59.32, SD = 14.62$)과 ‘처벌적-통제’ 집단($M = 54.69, SD = 12.37$)이 ‘온정적-친밀’ 집단($M = 48.95, SD = 10.47$)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정결여-무관심’ 집단과 ‘처벌적-통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신체화 경향[$F(2, 218) = 5.88, p < .01, \eta^2 = .05$]은 ‘애정결여-무관심’ 집단($M = 49.43, SD = 10.55$)과 ‘처벌적-통제’ 집단($M = 49.71, SD = 11.32$)이 ‘온정적-친밀’ 집단($M = 44.80, SD = 9.33$)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애정결여-무관심’ 집단과 ‘처벌적-통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군집별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 평균(표준편차) 및 다변량분석 결과

($N = 221$)

	군집 1($n = 53$)	군집 2($n = 72$)	군집 3($n = 96$)	F	Partial η^2	post hoc
	애정결여-무관심	처벌적-통제	온정적-친밀			
	$M(SD)$	$M(SD)$	$M(SD)$			
우울	59.32(14.62)	54.69(12.37)	48.95(10.47)	13.05***	.11	1,2>3
신체화 경향	49.43(10.55)	49.71(11.32)	44.80(9.33)	5.88**	.05	1,2>3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전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밝혀짐으로써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문제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이러한 양육태도의 속성은 양육자가 처한 환경과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최신의 양육태도 유형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어 아동의 우울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아동 우울의 여러 원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 심리문제의 일차적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우울과 상관이 높은 신체화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 양육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과 신체화 경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군집분석한 결과, 3개의 군집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군집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여 군집 1은 ‘애정결여-무관심’ 집단으로, 군집 2는 ‘차별적-통제’ 집단으로, 군집 3은 ‘온정적-친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1은 애정결여-무관심 유형으로 어머니의 비율 중 24%가 해당되었으며,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독, 성취압력, 간섭 또한 저하되어 있는 반면 처벌과 과잉기대, 비밀관성은 높게 나타나, 이 집단의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애정표현이나 심리적 지원을 거의 해주지 않고 자녀의 일상에도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의 실수나 문제행동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적하고 혼내는 식의 양육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2는 차별적-통제 집단으로 어머니의 비율 중 33%가 속하였다. 이 집단의 어머니들의 경우 아동에게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을 적절하게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나, 이와 동시에 성취압력, 간섭, 처벌, 감독, 과잉기대, 비밀관성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의 어머니는 자녀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자녀의 사소한 실수에도 과도한 지적과 심리적 위협을 가하거나 처벌함으로써 자녀는 불안감 및 두려움 경험과 더불어 자신감과 자존감 저하, 심리적 위축감을 경험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군집 3은 온정적-친밀 집단으로 어머니의 비율 중 43%로 가장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단은 가장 이상적인 양육태도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지지표현과 합리적 설명이 월등하게 높고, 감독도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이런 경우 어머니들은 평소 자녀에게 애정표현과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해주며 아동의 일상에도 적절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이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에 대한 성취압력이나 간섭, 처벌, 과잉기대, 비밀관성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낮으므로 아동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에도 강압적이고 처벌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아동에게 적당한 수준의 압력 및 행동적 제재를 가하여 아동이 스스로 올바른 행동규범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동은 어머니에 대한 강한 신뢰감과 정서적 유대감, 친밀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존감이 높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내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애정이 결여된 어머니 집단보다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해주되 처벌-통제적인 어머니 집단과 애정표현을 많이 해주는 온정적인 어머니 집단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애정표현 및 친밀감이 결여된 어머니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최신 연구 몇몇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2010년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부모양육태도를 군집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자녀에게 애정부족 및 무관심한 양육 스타일을 보이고 있는 양육자 비율보다 자녀에게 애정을 주되 강압적, 차별적

및 통제적인 양육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진, 2016; 김희진, 이호정, 신혜민, 이창배, 2023, 유지연, 황혜정, 2022).

이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및 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자녀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동시에 자녀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몰입으로 인해 학구열과 교육열은 매우 높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우, 2015).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알파맘’, ‘베타맘’, ‘캥거루맘’ 등의 신조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다. ‘알파맘’이란 자녀의 재능을 찾아서 탄탄한 정보력으로 체계적으로 자녀를 학습시키는 유형의 엄마를 뜻하고, ‘베타맘’이란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조언해주는 유형의 엄마를 뜻한다. ‘캥거루맘’이란 캥거루처럼 자식을 곁에 두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는 엄마를 뜻한다.

이러한 육아 관련 신조어들의 탄생은 갈수록 높아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과잉기대와 부모 의존도가 빚어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최신의 몇몇 연구들에서도 유사한 양육 유형과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도 설명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어머니 양육태도 집단별로 아동의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애정결여-무관심 집단과 처벌적-통제 집단은 온정적-친밀 집단보다 아동의 우울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개방적일수록(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충분히 받는다고 지각할수록(송소원, 2000; 한상철, 2000) 자녀는 낮은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아울러, 어머니의 규칙과 기대에 맞춰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양육태도가 높은 수준을 보일수록 유아기 자녀의 우울과 불안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박새롬, 2022).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지지가 부족하고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자기평가와 무력감을 유발하

여 우울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밝혀진 바 있다(하영희, 2004).

셋째,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에 따른 아동의 신체화 경향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애정결여-무관심 집단과 처벌적-통제 집단은 온정적-친밀 집단에 비해 아동의 신체화 경향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나 행동에 적절하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경우,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됨에 따라 심리적 갈등이 줄어들고 신체화 증상도 덜 경험한다는 차지량과 유미숙의 연구(2010) 결과와 유사한 맥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수현과 배은정의 연구(2023)에 의하면 부모의 과잉보호 혹은 과잉간섭과 같은 자녀에게 과도하게 관여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신체화 증상을 높이는 반면, 부모의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신체화 증상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김유자와 백용매의 연구(2000)에서도 비행청소년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일반청소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비해 통제적이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양육태도의 영향을 받은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우울감 및 자기비난 수준, 그리고 신체화 증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에 있어서 애정결여-무관심집단(군집 1)과 처벌적-통제집단(군집 2)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두 유형의 집단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속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군집 1은 자녀에게 애정이 부족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고, 군집 2는 자녀에게 처벌적이고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두 집단은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두 집단 모두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양육태도의 긍정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군집 3)과 부정적 양육태도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군집 1, 군집 2) 간에는 자녀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부정적 양육태도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아동의 우울에는 양육태도 8개의 하위요인 중 6개의 하위요인(지지표현, 합리적 설명, 간섭, 처벌, 우울, 과잉기대)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아동의 신체화 경향에 있어서는 간섭과 과잉기대만이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잦은 간섭과 과도한 개입, 그리고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양육태도는 아동의 신체화 증상 발현과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지지하는 연구로 전숙영(2018)에 의하면, 부모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우울과 공격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과잉기대와 간섭이 아동의 신체화 증상에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더불어 신체화 증상과 우울 간의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점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머니 양육태도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부모양육태도 검사 결과 해석 시 하위요인들을 조합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우울과 신체화 경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육태도의 세부요인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어머니들에게 양육태도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의 우울 및 신체화 경향을 낮추기 위해서 양육자는 자녀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는 따뜻한 애정표현은 많이 해주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 및 훈육과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적절하게 해주더라도 자녀에 대한 처벌 및 통제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애정표현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에게 우울 및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부모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자녀에게 애정표현과 지지적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의 애정표현 유무와 별개로 자녀에게 통제적이

고 처벌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일방적인 관여 및 간섭과 더불어 자녀의 객관적인 능력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양육을 할 경우, 아동의 신체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부모교육 장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모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양육태도와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머니의 양육불안 감소 및 양육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져 아동의 건강한 심리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부모교육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기혼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증가와 육아에 대한 부담 및 육아의 어려움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혀졌으며(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Hancock(2022)도 한국의 저출산 원인 중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부장적 문화와 그에 따르는 여성의 심리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정혜림(2022)은 현대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가정 내에서도 여성 주도의 가사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시하며, 그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어머니들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과거에는 다양한 양육 지식이 세대 간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다면, 현재는 핵가족화로 인해 다수의 어머니들이 양육지식 부족으로 인한 양육불안감을 호소하며 양육효능감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애경, 2015).

이와 같은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지식의 부족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더불어 양육태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정서 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진영과 박유정(2016)은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와 영아기 자녀에 대한

애착 간에는 부적 상관성이 나타나는 것을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육아수당 및 아동수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박언하, 2020),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 바,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 및 관련 프로그램을 직장이나 공공기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 등의 관련 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여성이 지니고 있는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을 낮추는 동시에 남성의 육아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육아참여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서는 부모가 적절하고 올바른 양육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아동의 심리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의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지역적 편중성이 있다. 이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모양육태도와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는 어머니의 평가에만 근거하였기 때문에 실제 본인의 양육태도보다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으며, 자녀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축소하거나 반대로 과장되어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향후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평가하는 검사와 더불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검사 및 아동 본인이 평정하는 심리검사 척도를 함께 활용하여 부모가 평가한 검사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어머니 양육태도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유형화하였으나, 군집분석은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향후 집단을 유형화하는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할 수 있겠으며, 이를 활용할 시 집단분류의 정확성이 더 높고, 집단 유형을 위한 예측 변수 투입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민여준, 2015).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보

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아동의 우울과 신체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육아참여도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고 양육 스트레스 및 양육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손능수, 권진, 김진옥, 2021)와 배우자, 가족 등의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자녀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채진영, 박유정, 2016)가 밝혀진 바 있다. 상기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육아참여도와 양육태도를 포함하여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볼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갈혜지, 황정원 (2017).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문제행동 차이 분석. *육아정책연구*, 11(1), 127-154.
<https://doi.org/10.5718/kcep.2017.11.1.127>
- 김경선 (2006).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간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 정재은 (2024). 어머니 양육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 사회·정서적 유능감, 스마트폰 과의존 특성. *어린이미디어연구*, 23(1), 189-217.
<https://doi.org/10.21183/kjcm.2024.03.23.1.189>
- 김누리, 이정운 (2020). 한국형 부모양육태도 개념도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1), 155-190.
<https://doi.org/10.15753/aje.2020.03.21.1.155>
- 김미진 (2016).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의 유형 차이 분석: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2), 239-262.
<http://doi.org/10.14698/jkcce.2016.12.02.239>
- 김승아, 김라진 (2023).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 과보호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6(4), 421-438.
<http://doi.org/10.17641/KAPT.26.4.4>
- 김원, 박은아, 천성문 (2016).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자기주도 학습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치료연구*, 8(2), 123-142.
- 김유자, 백용매 (2000). 정상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부모양

- 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우울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3(1), 139-160.
- 김종희, 박성희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3), 255-266.
<http://doi.org/10.35873/ajmahs.2018.8.3.024>
- 김지윤, 진미경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355-378.
<http://doi.org/10.21509/KJYS.2019.04.26.4.355>
- 김지혜, 조선미, 홍창희, 황순택 (2017). KPRC 한국아동인성 평정척도 실시 및 해석요강. 대구: 한국심리 주식회사.
- 김호정 (2016). SPSS 23 통계분석 및 해설(2판). 서울: 탐북스.
- 김희진, 이호정, 신혜민, 이창배 (2023).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 사이버비행과 현실비행의 비교. *사회과학연구*, 30(3), 133-151.
<https://doi.org/10.46415/jss.2023.03.30.3.133>
- 남상인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수현, 배은정 (2023).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신체화 증상의 관계에서 그릿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6(1), 1-8.
<https://doi.org/10.15434/kssh.2023.36.1.1>
- 문대근, 문수백 (2011). 아동의 내면화 · 외현화문제행동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2(5), 49-65.
- 민여준 (2015). 집단 분류의 통계적 방법 비교: 군집분석, 판별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정임, 한세영 (2012). 어머니의 심리통제와 행동통제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17-137.
- 박새롬 (2022). 어머니의 유아기 양육행동이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정서문제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9(3), 23-46.
<https://doi.org/10.15284/kjhd.2022.29.3.23>
- 박애경 (2015). 어머니의 양육불안과 유아의 우울간의 상관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375-392.
- 박언하 (2020). 저출산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정책에 관한 질적 연구. *인문사회21*, 11(2), 901-914.
<https://doi.org/10.22143/HSS21.11.2.62>
- 박재우 (2015). 알파맘-베타맘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녀 자존감의 매개 효과 분석. *교육치료연구*, 7(3), 431-445.
- 박지영, 강성단, 권경숙 (2010). 유아의 기질, 포래유능성, 어머니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39-162.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6). 2006년 상반기 아동 정신건강 선별검사.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손능수, 권진, 김진옥 (2021). 기혼 남성의 육아 참여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요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3(1), 159-188.
<https://doi.org/10.38134/klgr.2021.23.1.159>
- 손소영 (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 · 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소원 (2000).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3, 1-23.
- 신현균 (2002). 청소년의 학업 부담감, 부정적 정서, 감정표현불능증 및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신체화 증상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171-187.
- 심수진, 김은아 (2022). 아동 · 청소년 삶의 질 2022. 대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 양명재, 방희정 (2014). 유아의 수줍음, 인지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위축 및 불안, 우울간의 관계: 양육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서 · 행동장애연구*, 30(4), 363-386.
- 오경자, 김은정 (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상. *대한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3(1), 117-128.
- 유민경 (2024).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지연, 황혜정 (2022). 부모의 양육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9(3), 1-28.
<https://doi.org/10.22155/JFECE.29.3.1.28>
- 윤기봉, 이사라 (2017). 아동, 청소년의 신체증상 관련변인 연구-개인, 부모, 사회적 관계 변인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4(2), 39-57.
- 이경숙, 박진아, 이미리, 신유림 (2013). 한국판 부모자녀관계 척도 (Korean-Parenting Relationship Questionnaire-Preschool; K-PRQ-P)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3), 441-458.
- 이슬비 (2023. 9. 7). 아동 · 청소년 우울증 급증...5년새 60.1% 늘어.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2022에서 2024년 6월 13일 인출
- 이영숙, 김정옥 (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영환, 김정희, 차평, 한지현 (2016). 한국과 중국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부모의 양육신념 및 어머니의 문지기 행동 비교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207-226.
<https://doi.org/10.14698/jkce.2016.12.06.207>
- 이학식, 임지훈 (2015). SPSS 22 매뉴얼. 서울: 집현재.

- 이한주, 서미아 (2010).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3(1), 79-87.
- 이형민, 박성연, 서소정 (2008). 어머니의 양육유형 및 민감성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2), 97-111.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임호찬 (2008). 부모양육태도 검사. 서울: 마인드프레스.
- 장혜경, 이미정, 김경미, 김영란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숙영 (2018). 부모의 과잉기대·간섭과 청소년의 신체화 증상: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3(1), 55-67.
<https://doi.org/10.23931/kacp.2018.13.1.55>
- 정계숙 (2009). 정서 관련 아동 및 부모 양육 변인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화 증상. *아동학회지*, 30(4), 155-171.
- 정해경 (2005). 신체화 증상과 관련된 유아의 스트레스와 문제 행동 및 부모의 양육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림 (2022). 신경증, 집중적인 부모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 관계에서 어머니 문단기의 매개효과: 전업모와 취업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7(2), 95-113.
<https://doi.org/10.18205/kpa.2022.27.2.002>
- 조선미, 박혜연, 김지혜, 홍창희, 황순택 (2006). 한국 아동 인성 평정 척도(Korean Personality Rating Scale for Children; KPRC)의 표준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825-848.
- 조유진 (2012).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군집과 아동의 개인내적 특성과의 관계 -개인내적 특성 중 자아존중감, 내외 통제소재, 자기통제력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6(2), 289-307.
<https://doi.org/10.21459/kccr.2023.27.1.1>
- 차지량, 유미숙 (2010). 아동의 신체화 증상 경험과 관련 부모 및 아동 변인. *가정과삶의질연구*, 28(2), 193-202.
- 채진영, 박유정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영아에 대한 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3(4), 101-120.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윤경, 이지연 (201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우울 관계에서 긍정적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자기통제의 매개효과 연구. *아동교육*, 20(2), 235-251.
- 하영희 (2004).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우울 및 문제행동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2(2), 42-52.
- 한상철 (2000). 가출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1(2), 29-53.
- 한종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림 (2021).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의 군집유형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 *한국생활과학학회지*, 30(5), 771-781.
<https://doi.org/10.5934/kjhe.2021.30.5.771>
-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C.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pp. 169-208). New York: Sane Foundations.
- Fritz, G. K., Fritsch, S., & Hagino, O. (1997). Somatoform disorde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10), 1329-1338.
<https://doi.org/10.1097/00004583-199710000-00014>
- Hair, J., & Black, W. (2000). Cluster analysi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147-205).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ncocks, P. (2022, December 4). South Korea spent \$200 billion, but it can't pay people enough to have a baby. *CNN*. Retrieved June 13, 2024, from <https://edition.cnn.com/2022/12/03/asia/south-korea-worlds-lowest-fertility-rate-intl-hnk-dst/index.html>
- Kagan, J. (2003). Biology, context, and developmental inquir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4, 1-23.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4.101601.145240>
- Lipowski, Z. J. (1988). Somatization: The concept and its clinical ap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1), 1358-1368.
<https://doi.org/10.1176/ajp.145.11.1358>
- Malmquist, D. P. (1977). Childhood depression: A clinical and behavioral perspectives. In J. G. Schulerbrants, & A. Raskin (Eds.), *Depression in childhood: Diagnosis, treatment and conceptual model* (pp. 33-59). NY: Raven Pres.
- Nadeau, M. E., Nolin, P., & Chartrand, C. (2013). Behavioral and emotional profiles of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6, 11-24.
<https://doi.org/10.1080/19361521.2013.732202>
- Rey, J. M., &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3), 382-385.
<https://doi.org/10.1097/00004583-199005000-00008>
- Stevenson, M. M., Fabricius, W. V., Cookston, J. T., Parke, R. D., Coltrane, S., Braver, S. L., & Saenz, D. S. (2014). Marital problems, maternal gatekeeping attitudes,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50(4), 1208-1218.
<https://doi.org/10.1037/a0035327>

- Vaccarino, A. L., Sills, T. L., Evans, K. R., & Kalali, A. H. (2008). Prevalence and association of somatic symptoms in 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3), 270-276.
<https://doi.org/10.1016/j.jad.2008.01.009>
- Waller, E., Scheidt, C., & Hartmann, A. (2004).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illness behavior in somatoform disorder.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2(3), 200-209.
<https://doi.org/10.1097/01.nmd.0000116463.17588.07>